



12면
전통문화 발전 맞선

전주매일

2023년 8월 1일 화요일 (음 6월 15일) 제331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옛 전주자립원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

전주보름학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2027년 3월 개교 목표

장애학생 직업 중점, 고용·복지·교육 연계형 모델... 전국 최초

전국 최초의 고용·복지·교육 연계형 모델로 옛 전주자립원 부지에 특수학교가 들어선다.
지난달 3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직업중점형 특수학교인 (가칭)전주보름학교 설립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총 사업비 380억원을 투입해 18학급, 132명 규모

로 설립된다.
전주보름학교는 장애학생 직업 중점 특수학교로 △세차실·세탁실·사무지원실로 구성된 휴먼서비스학과 △바리스타실·제과제빵실·생활요리실로 구성된 외식서비스학과 △상품포장조리실·스마트농업실·식품가공실로 구성된 농생명산업학과로 교육과정 등을 특성화 해서 운영된다.

특히 옛 자립원 일대에 장애인일자리종합타운(전주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전북도), 장애인고용교육연구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건립될 예정으로, 이들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특색있는 직업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주보름학교가 설립되면

전주 덕진구 학생들이 완산구에 위치한 특수학교로 통학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주시 특수학교의 균형적 배지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통학 여건과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자립원 부지 내 장애인직업복합단지 조성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한 직업교육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직업 역량과 사회통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세계스카우트잰버리 개최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김관영 도지사(사진 오른쪽)가 잰버리 아영지와 글로벌센터를 방문해 직접 현장을 누비며 행사 최종 점검에 나서고 있다

잰버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 김관영 도지사, 행사 최종 점검 나서

김관영 도지사가 세계스카우트잰버리 개최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잰버리 아영지와 글로벌센터를 방문 직접 현장을 누비며 행사 최종 점검에 나섰다.
특히 이날 현장 방문은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주말 국지성 호우가 내리면서 아영지 일부가 침수됐다는 소식이 김 지사가 직접 원인 파악과 처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전격적인 현장점검이 이뤄졌다는 것.
현장을 방문한 김 지사는 침수된 아영지 구간을 둘러본 후, 침수구간에 대한 추가 배수로 공사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차질 없는 설치와 침수 대비를 지시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부안에 시간당 32mm의 국지성 호우가 내리면서 아영지 일부 구간에 침수가 발생했다.
침수대책으로 마련해둔 간이펌프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면서 큰 피해는 없었으나 일부 서브캠프에서 침수가 발생해 전북도는 아간작업까지 불사하며 배수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응 현장에서 김 지사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세계스카우트잰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건강한 대회로

치러낼 수 있도록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한 대응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번 대회의 컨트롤 타워를 맡게 될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대회 성공을 위해서 조직위와 정부부처,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최를 하루 앞두고 잰버리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아영지에는 71개국 1만4,450명이 입영을 완료했으며(30일 오후 10시 기준), 전북과 14개 시군이 마련한 사전관광프로그램과 농촌체험프로그램에는 6,500여명의 참가자가 참여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잰버리, 시동 걸다

도내 4개 대학서 'JB-스카우트의 밤'

전북도가 새만금 세계잰버리를 앞두고 사전 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해외 스카우트 대원을 대상으로 'JB-스카우트의 밤' 행사를 열어 세계청소년 축제인 잰버리의 시동을 걸었다.
'JB-스카우트의 밤'은 '사전·사후 전북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도내에 숙박하는 해외 스카우트 대원 16개 국가 5,540명을 대상으로 전북도가 준비한 도 자체 특별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전북대(삼성문화회관), 원광대(문화체육관), 우석대(아트홀), 전주대(하림미션홀)에서 각각 이틀씩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전북의 전통공연(노상놀이, 국악관현악, 퓨전국악공연 등)과 전통체험, 한류(K-뷰티 등 문화체험 부스 프로그램)를 운영해, 우수한 전북의 문화를 세계 청소년들에게 알렸다.
김관영 도지사는 30일 원광대와 31일 전주대에서 각각 열린 'JB-스카우트의 밤'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류 문화(K-Culture)'의 중심지인 전북에서 가장 전북다운 가장 한국적인 볼거리를 즐겨라를 마음껏 누리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잰버리는 8월 1~12일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린다. /김재훈 기자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을 추구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바른마음·바른생각·바른행동에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초대합니다.

구 분	모집인원	자 격 조 건
취재기자(본사)	0명	일간지 근무 경력자 우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 접수기간: 2023년 8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 (본사총무팀)

전주매일

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가동

도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21곳서 운영키로
"폭염 시기 온 높은 낮시간대 외출 가급적 자제
충분한 수분섭취·건강수칙 준수 등 지켜야"

전북도는 본격적인 폭염을 대비하기 위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질병관리청과 협력,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도내 응급실 운영기관 21개소에서 무더위에 따른 건강피해 및 온열질환자 발생현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해 폭염의 건강 영향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수집한 온열질환 발생 현황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을 통해 매일 제공되고 있다.
최근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신고된 도내 온열질환자는 총 57명(전국 872명)으로,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1명(19.3%)으로 가장 많고 80대 이상이 10명(17.5%)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환자가 49명(85.9%)으로 여성환자 8명(14.1%)보다 많았다.
질환 종류는 열탈진이 33명(5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열실신이 9명(15.9%), 열경련이 8명(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열사병과 열탈진 등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를 시원한 장소에 옮겨 물수건, 얼음, 부채 등으로 몸을 식히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 시기가 온 높은 낮시간대 외출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며, "충분한 수분섭취 등 폭염대비 건강수칙 준수는 물론, 어린이와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므로 어린이나 노약자를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

제9대 장수군의회 개원 1주년

힘차게 달려온 1년!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가 되겠습니다!

장수군의회
http://council.jangsu.go.kr